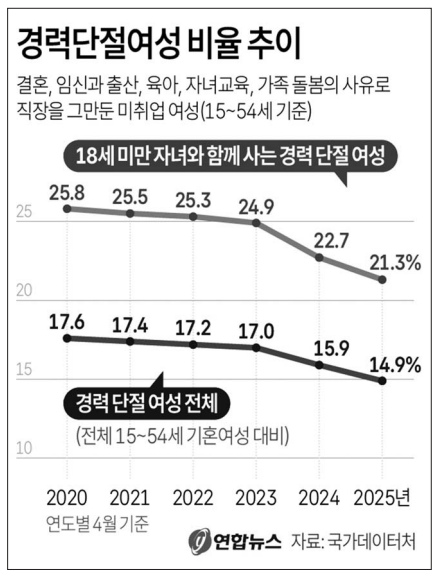


기혼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미취업 절반 '경단녀'



상반기 고용률 67.3% 전년대비 1.3%p ↑

영유아 둔 엄마 3명 중 1명꼴 경력단절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관련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67.3%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역시 기혼여성 10명 중 3명이 미취업 상태였으며, 이중 절반 가량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었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4월 기준)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15~54세)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광주 기혼여성은 22만2000명으로 지난해

(22만5000명)보다 3000명 줄었다.

전남 기혼여성은 22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4000명)보다 1만3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광주 미취업 여성은 7만9000명이며, 그중 경력단절여성은 3만3000명이었다. 전남 미취업 여성은 6만5000명으로, 그중 경력단절여성은 2만8000명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의 사유로 직장

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의미한다.

전국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전국 기혼여성은 같은 기간 765만4000명에서 740만3000명으로 25만1000명 감소했다.

전국 미취업 여성은 241만9000명이며, 그중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000명이었다.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높았다.

자녀 연령별로 경력 단절 여성 규모는 6세 이하에서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7~12세 29만2000명, 13~17세 13만3000명 순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자녀 6세 이하에

서 31.6%로 30%를 웃돌았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를 보면 육아 49만명, 결혼 26만8000명, 임신·출산 24만4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이 46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24만7000명, 1년 미만은 14만6000명, 1~3년 미만 12만5000명, 3~5년 미만은 12만2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7.3%로 작년보다 1.3%p 상승했다.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1.9%p 높아졌다.

자녀 수, 자녀 연령별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자녀 연령별 고용률은 6세 이하에서 57.7%로 1년 전보다 2.1%p 높아졌다.

7~12세(66.1%)는 1.8%p, 13~17세(70.4%)는 1.2%p 각각 상승했다. 특히 13~17세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처음 70%를 넘었다.

자녀 수별로는 자녀 1명과 2명의 고용률이 64.6%로 같아졌다. 3명 이상일 때는 60.6%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코스피, 엔비디아 훈풍에 4000선 회복...반도체 강세

4004.85 마감...삼전·SK하이닉스 등 대장주 매수세 물려

코스피가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 수출 만에 4000선을 회복했다.

엔비디아의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은 'AI 거품론'을 견어내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75.34p(1.92%) 오른 4004.8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1.46p(2.58%) 오른 4030.97로 출발해 한때 4059.37까지 올랐으나 장 마감 직전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

이날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12억원, 756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3864억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훈풍에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물렸다.

삼성전자는 4.25% 오른 10만1600원, SK하이닉스는 1.60% 상승한 57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0.80%), HD현대중공업(1.57%), 두산에너지(4.4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2%)는 올랐고, 현대차(-0.76%), KB금융(-0.82%), 기아(-0.96%)는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62p(2.37%) 오른 891.9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78p(1.47%) 오른 884.10으로 시작해 강세를 유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4조9459억원, 7조7903억



20일 서울 증시 한은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4000선을 재탈환했다.

원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오른 1467.9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도 대체로 강세로 마감했다.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86.24p(2.65%) 상승한 4만9823.94에, 대만 가권지수 역시 846.24p(3.18%) 상승한 2만7426.36에 장을 마쳤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인공지능(AI)·모빌리티 유망기업들을 광주로 초청해 하반기 광주경제자유구역 홍보여행(팸투어)을 펼쳤다.

광주로 오세요...AI·모빌리티 유망기업 '투자여행'

AI융복합지구·GGM·ACC 방문...광주경자청, 미래 투자처 홍보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인공지능(AI)·모빌리티 유망기업들을 광주로 초청해 하반기 광주경제자유구역 홍보여행(팸투어)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지역 주요 산업·문화시설을 소개해 '미래 투자처' 광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 참여기업은 현대합성공업주,

장덕금속주, 보성열처리주, 한국핵사공주, ㈜프리레 등 5개 기업이다.

참가자들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첨단3지구(AI융복합지구), 광주과학기술원 슈퍼컴퓨팅센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GAMA),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등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미래산업 생태계를 직접 살펴보면서 광주의 투자 매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 기업들이 광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삼성, 스타트업 손잡고 혁신 생태계 확산

'2025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345억원 투자 유치

삼성전자가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 확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2025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C랩과 함께, 한계를 넘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육성한 C랩 아웃사이드 7기 30개 스타트업과 5개 졸업사가 참가해 성과를 공유했다.

C랩 아웃사이드 7기는 프로그램 기간 총 218명을 신규 채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총 34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주로 인공지능(AI), 디지털헬스, 로봇,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 중이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협력하기도 했다. 에이디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로봇

개발에 핵심 부품을 공동 개발 중이며, 지오그리드는 자체 개발한 친환경 플랫폼 솔루션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행사에는 C랩 아웃사이드 4기 졸업사인 휘트테크놀로지스 등도 참가했다. 휘트테크놀로지스는 생생형 AI 플랫폼 스타트업 최초로 누적투자 1300억원을 유치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12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트'를 도입한 뒤 2018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신설했다. 현재까지 총 959개(사내 423개, 사회 536개)의 사내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내년 중 1000개 기업 육성에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제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0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건물에너지 총량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건물에너지 총량제' 정착 힘모은다

한국부동산원은 20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건물에너지 총량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물에너지 총량제는 개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확인 등을 통해 등급을 산정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의 건물에너지 총량제 정착과 확산을 비롯해 건물부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량제 추진 체계 마련, 시민사업 공동 추진, 지역 중심의 총량제 기틀 마련 및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은 "앞으로도 총량제 도입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